

The relationship among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marriage migrant women participating in Korean traditional dance

Dong-Kun Kim*, Byung-Jun Cho**, Moon-Sook Lee*

*Professor Emeritus,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rofessor, Dept. of EM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Korea

*Instructor,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identity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participating in Korean traditional danc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marriage migrant women (experimental group: 28, control group: 30). Surveys that were taken before and after the 3 months of participation in Korean traditional dance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Results indicated that acculturative stres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Korean traditional dance.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acculturative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had an indirec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Korean traditional dance.

▶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dance, marriage 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내재된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대상은 D시의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결혼이주여성(실험집단:28명, 통제 집단:30명)으로 3개월간(주 2회, 50분씩)의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 전, 후의 수집된 설문자료를 SPSS 21.0을 이용하여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통무용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전통무용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 **주제어:** 한국전통무용,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
- First Author: Dong-Kun Kim, Corresponding Author: Moon-Sook Lee
 - *Dong-Kun Kim (dongkun@cnu.ac.kr),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Byung-Jun Cho (cho6451@gmail.com),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Moon-Sook Lee (fesaikho@hanmail.net),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Received: 2020. 02. 04, Revised: 2020. 02. 18, Accepted: 2020. 02. 20.

I. Introduction

2016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은 2,001,828명으로 2만명을 넘는 수치로 한국 총인구의 3.9%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삶의 안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2006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결국 복지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주 직전까지 생활했던 문화와는 상이한 문화에 적응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소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3].

실제로 이주자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따른 절망감과 낮은 사회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의 상실 등은 극도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곧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이주여성들의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 만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자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대처한다면, 그들은 편안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아존중감을 높여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역량 강화프로그램이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전통무용은 인간이 가진 가장 단순한 표현수단으로써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오면서 다른 모든 예술의 근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통무용은 민족정신의 혼이

깃들여져 있으며 시대와 지역, 그리고 삶의 양식에 따라 변화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5]. 이로써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한국전통무용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가치있는 방법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통무용 참가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생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동안 인식되어 온 단일민족국가로 생활양식의 변화와 경제의 발달로 국제화에 접어들면서 다문화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적 양상을 띠고 있다. 매년 인구동향을 측정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1], 외국인 근로자부터 유학하는 외국인, 한국사회를 염원하는 탈북자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 맺은 다양한 교류와 가치관의 변화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주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으로 이주하게 되는 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바로 한국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에 의한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국 외국인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6],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전반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낮은 심리적 안녕감[8] 등과 관련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 소외감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문제 외에도 외국인이 타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10][11].

결론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마저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과 가족간의 심리적인 동질감, 그리고 서로 유사한 취미와 활동을 공유하고 즐거운 대화를 함께 하는 것들과 관련된다고 제시하였다[12][13][14].

[15]는 문화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고,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16]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정부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17]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가지는 문화적 스트레스의 형태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향수병으로 인한 문화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충격, 고립감 그리고 열등감 순이었다. 또 문화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 요인은 결혼생활 만족감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가족관계 지향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감의 해소, 가족간의 취미생활 공유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문화적응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참가 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2. Korean Traditional Dance

무용은 비언어적 신체 표현으로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심리적 긴장은 물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에도 효과적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18].

[19]은 '낮선 환경에서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한 바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 역시 상이한 문화권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스스로가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문제가 없는 움직임의 언어 즉, 무용활동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충격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에 적응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전통무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동작마다 유구한 역사와 우리의 역사 깊은 정서가 담겨져 있다[19]. 따라서 한국전통무용의 경험은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새로운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 특히 한국무용은 놀이와 유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어울려 춤을 춤으로써 정서적 교류는 물론 소통능력을 향상되어 인간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자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21].

이처럼 문화교육으로서 무용이라는 매체를 통해 결혼이주 여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양식과 새로운 삶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원만한 문화적응을 경험케 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보다 편안한 정착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22].

3. Research hypothesis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여성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통무용 참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Research Design

1. Target of study

이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결혼 이주여성으로 3개월(주 2회, 50분씩)동안의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실험집단과 이에 통제집단은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집단별 각각 30명을 무선표집 하였으나 최종 자료분석 대상은 실험집단 28명, 통제집단 30명이었다. <표 1>은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2. Measurement Tool

본 연구의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4문항, 문화적응 스트레스 2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생활만족도 23문항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23]이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와 [24]이 번역한 문화이입 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한 [2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하위 영역에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수준이 높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Group	Participation	Non participation	Total
Nation	China	9	11	58
	Japan	3	5	
	Vietnam	10	10	
	Philippines	6	4	
Age (Year)	18-20	4	6	58
	21-24	11	13	
	25-28	9	9	
	>29	4	2	
Household income (man won)	<100	2	4	58
	100-200	10	10	
	200-300	13	13	
	>300	3	3	
Wedding period (Year)	<2	6	5	58
	2-3	7	9	
	3-5	11	13	
	>5	4	3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6]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총 10개 문항으로 특정한 영역에 편중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 및 실패감 등 자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27].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Scale)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주민의 설문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28]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6개 하위영역에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도출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측정 문항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chi^2=174.16(df=24, p<.01)$, GFI=.902(≥ 0.9), TLI=.912(≥ 0.9), CFI=.909(≥ 0.9), RMSEA=.088($\leq 0.05\sim 0.1$)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도에서는 구체적으로 AVE 값은 .817~.843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 값은 .907에서 .951사이이며, 표준적재량은 .612~.81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모형의 적합도는 $\chi^2=177.16(df=39, p<.01)$, GFI=.914(≥ 0.9), TLI=.907(≥ 0.9), CFI=.912(≥ 0.9), RMSEA=.071($\leq 0.05\sim 0.1$)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준을 고려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중타당성 검증은 표준적재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AVE)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9]가 제시한 기준인 표준적재량 .5이상, 개념신뢰도 .7이상, AVE .5이상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확보되었다. 표준적재량은 .649~.781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 값은 .919에서 .934이며, AVE 값은 .819~.827로 나타났다.

삶의 질 영역에서는 모형 적합도는 $\chi^2=131.15(df=31, p<.01)$, GFI=.914(≥ 0.9), TLI=.924(≥ 0.9), CFI=.911(≥ 0.9), RMSEA=.081($\leq 0.05\sim 0.1$)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타당도에서는 구체적으로 표준적재량은 .611~.848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 값은 .911에서 .973사이이며, AVE 값은 .884~.917로 나타났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s		Qu estimations	std. loading	SE	C.R	AVE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1	.668	.010	.914	.820
		2	.670	.101		
		3	.638	.071		
		4	.690	.056		
		5	.612	.102		
		6	.681	.049		

	Homesickness	7	.748	.018	.907	.817
		8	.761	.035		
		9	.798	.060		
	Perceived hostility	10	.801	.101	.951	.843
		11	.710	.031		
		12	.681	.081		
	Culture shock	13	.711	.060	.943	.833
		14	.741	.023		
		15	.697	.011		
	Fear	16	.798	.027	.910	.818
17		.723	.030			
18		.811	.019			
19		.798	.030			
20		.807	.047			
$\chi^2=174.16$, $df=24$, $GFI=.902$, $TLI=.912$, $CFI=.909$, $RMSEA=.088$						
Self-esteem	Positive esteem	1	.712	.029	.919	.819
		2	.705	.031		
		3	.698	.046		
		4	.649	.010		
		5	.668	.049		
	Negative esteem	6	.781	.019	.934	.827
		7	.710	.057		
		8	.694	.066		
		9	.671	.071		
		10	.694	.030		
$\chi^2=177.16$, $df=39$, $GFI=.914$, $TLI=.907$, $CFI=.912$, $RMSEA=.071$						
Life Satisfaction	Life Environment	1	.720	.093	.928	.897
		2	.712	.128		
		3	.757	.069		
		6	.618	.079		
		10	.611	.061		
	Conscious economy	4	.801	.053	.911	.884
		5	.749	.047		
		6	.821	.040		
	Companion & Relationship	7	.711	.061	.939	.901
		8	.734	.029		
		9	.710	.030		
		10	.848	.019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11	.589	.033	.946	.914
		12	.691	.028		
		13	.711	.051		
	Jop and Daily Schedule	14	.768	.090	.917	.887
		15	.704	.018		
		16	.809	.030		
	Ego & General life	17	.781	.027	.973	.917
		18	.853	.039		
		19	.771	.011		
		20	.793	.020		
		21	.807	.083		
	22	.691	.018			
	23	.688	.037			
$\chi^2=131.15$, $df=31$, $GFI=.914$, $TLI=.924$, $CFI=.911$, $RMSEA=.081$						

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변인에 따라 SPSS version 24.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지의

구조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causal model)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IV. Experimental Results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이 연구에서는 단일 차원성이 확보된 요인들의 관계가 방향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변인 간 측정값은 .80 이하로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각의 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한국전통무용 참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에 나타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Goodness of Fit-test of Research Model

한국전통무용 참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간에 설정한 구조적 관계 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을 위해서 χ^2 -검증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67.187$, $CFI=.931(\geq 0.9)$, $TLI=.918(\geq 0.9)$, $RMSEA=.079(\leq 0.05\sim 0.1)$ 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모두 적합기준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Perceived discrimination(1)	1												
Homesickness(2)	.441 (*)	1											
Perceived hostility(3)	.339 (**)	.429 (*)	1										
Culture shock(4)	.329 (**)	.321 (**)	.340 (**)	1									
Fear(5)	.426 (*)	.302 (**)	.327 (*)	.440 (*)	1								
Positive esteem(6)	.328 (**)	.482 (*)	.424 (*)	.328 (**)	.340 (**)	.1							
Negative esteem(7)	.370 (**)	.363 (**)	.478 (*)	.385 (**)	.327 (**)	.383 (**)	1						
Life Environment (8)	.314 (**)	.431 (*)	.329 (**)	.443 (**)	.475 (*)	.462 (*)	.326 (**)	.1					
Conscious economy (9)	.328 (**)	.482 (*)	.431 (*)	.324 (**)	.349 (**)	.391 (**)	.224 (**)	.349 (**)	1				
Companion & Relationship(10)	.370 (**)	.363 (**)	.460 (*)	.381 (**)	.383 (**)	.228 (**)	.349 (**)	.432 (*)	.391 (**)	1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11)	.314 (**)	.430 (*)	.329 (**)	.433 (*)	.432 (**)	.334 (**)	.326 (**)	.343 (**)	.228 (**)	.224 (**)	1		
Jop and Daily Schedule(12)	.370 (**)	.363 (**)	.398 (**)	.456 (**)	.343 (**)	.224 (**)	.228 (**)	.224 (**)	.334 (**)	.362 (**)	.363 (**)	1	
Ego & General life(13)	.214 (**)	.230 (**)	.329 (**)	.343 (**)	.466 (*)	.230 (**)	.329 (**)	.343 (**)	.412 (**)	.334 (**)	.391 (**)	.224 (**)	1

**p<.01, *p<.05

Table 4. Fit index for the study model

Overall Index	χ^2	$\chi^2 / df(19)$	sig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67.187	1.70	.000	.931	.918	.079
Fit Index Standard		<3.0	>0.05	≥0.9	≥0.9	≤0.05~0.1

2.2 Path validation of structural model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므로, 앞서 제시한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무용 참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에는 경로계수 값이 .7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한국 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Structural Path	estimate	t	p
Acculturative stress → Self-esteem	0.701	6.451	.000***
Acculturative stress → Life Satisfaction	0.597	4.117	.000***
Self-esteem → Life Satisfaction	0.410	3.291	.000***

***p<.001

둘째, <가설 2>에 대한 분석 결과, 두 변수 간 경로계수 값은 .5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3>에 대한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 값은 .4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Indirectly affects of structural model

Structural Path	estimate	t	p
Acculturative stress → Self-esteem → Life Satisfaction	0.301	2.889	.011*

*p<.0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넷째, <가설 4>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간접효과를 주는 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경로계수=.301, p<.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전통무용참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전통무용 참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 간에는 구조적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V. Conclusions

이 연구는 한국전통무용 참가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전통무용 참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생활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통무용 참가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의 차이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움직임의 통해 대화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써 ‘우리’라는 관계로 거듭나는 전략의 일환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연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은 이주여성들이 폭넓은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생활 만족 극대화하기 위해 삶의 전반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찾아내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09.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Foreign Resident Status Survey” 2016.
- [2] Kim JM,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Adaptation Programs for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master’s Dissertation, Kyungwoon University, Dec, 2013
- [3] J.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Vol. 46, No. 1, pp. 5-34, 1997. Doi:10.1111/j.1464-0597.tb01087.x
- [4] Sin MJ,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of Migrant Workers' Philippines”, master’s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April, 2005.
- [5] Sin HS and Oh SI, “Women’s Self-Esteem who Participate in Life Dance and Sport Type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1, No. 29, pp. 773-784, 2007.
- [6] A.J. Romero, and R.E. Roberts, “The Impact of Multiple Dimensions of Ethnic Identity on Discriminat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33, No. 11, pp. 2288-2305, 2003. Doi: 10.1111/j.1599-1816.2003.tb01885.x
- [7] C. Leong, and C. Ward, “Identity conflict in sojou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4, No. 6,

- pp. 763-776, 2000. Doi: 10.5353/th_b5016285
- [8] M.T. Schmitt, N.R. Branscombe, T. Postmes, and A. Garcia,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 140, No. 4, pp. 921-48, Feb, 2014. doi: 10.1037/a0035754.
- [9] R.L. McFarland, "A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eported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west florida" (Order No. 157 3598503).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1459761928). Retrieved from <http://lps3.search.proquest.com.libproxy.sogang.ac.kr/docview/1459761928?accountid=13942> (2013).
- [10] M. Kelaher, S. Paul, H. Lambert, W. Ahmad, and G.D. Smith, "The Impact of Different Measures of Socioeconomic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ity and Health", *Annals of Epidemiology*, Vol. 18, No. 5, pp. 351-356. Dec, 2007.
- [11] E.A. Pascoe, and L.S. Richma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5, No. 4, pp. 531-554, 2009. doi: 10.1037/a0016059.
- [12] Park JO, "Adaptation and Conflict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s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June, 2011.
- [13] Lee SJ,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ti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 Verification of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Martial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doctor's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Dec, 2014.
- [14] Kim IA, "A Study on the Effects of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Dyadic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docto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ec, 2015.
- [15] Park GW,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cological system factors on mental health of women marriage immigrant", master's Dissertation, Mokpo University, June, 2007.
- [16] Jang DH and Lee KE, "Effects of Public Support on Mental Health and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in Married Immigrant Women", *Gender & Culture*, Vol. 3, No. 1, pp. 67-97, 2010.
- [17] Cho JH,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mong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Immigrants", master's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July, 2010.
- [18] Lee JE, "The Relation Between Talking-Lect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Attending a Social-Education Dancing Lecture", *Research on Physical Fitness*, Vol. 26, No. 2, pp. 121-127, 2003.
- [19]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 study on the Secondary teacher training and re-education for revitalize culture and arts education", Seoul : laboratory of Theater textbook, 2005.
- [20] Jung EY, Choi HJ, "A search for traditional dance education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Vol. 18, No. 4, pp. 199-217, 2010.
- [21] Na KA, Oh YJ, and Park HJ,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ance Program to Create Cultural Identity for Multicultural Youngsters", *The Korean Research Journal of Dance Documentation*, Vol. 24, pp. 19-38, March, 2012.
- [22] Kim YJ, "An Analysis of Foreign Migrant Women's Experiences on Korean Tradition Dance",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Dec, 2006.
- [23] D.S. Sandhu, and B.R. Asrabadi,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No. 75, No.1, pp. 435-448, 1994. Doi:10.2466/pr0.1994.75.1.435
- [24] Lee SJ,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ultural Transfer Process and Belief System and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Dec, 1995.
- [25] Sin GY, "A Study on Factor Analysis and Social Welfare Intervention for Migrant Workers' Cultural Adaptation Stress", master's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2006.
- [26]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Papers*, Vol. 11, No. 1, pp. 107-130, 1974.
- [27] Choi SY, Choi MY and Seo EG, "What makes us stronger? The influence of scarcity on persistence following success or failure",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017, No. 8, pp. 332, 2017.
- [28] Choi H,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f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Life with focus on Social Support",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Feb. 2008.
- [29] Kim G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 Annarae Academy. 2010.
- [30] Kwon MK, "A Study on Perspective of Educational Culture in Multicultural Society with Life Experiences of Immigrant Married Women",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06.

Authors



Dong-Kun Kim received the B.S.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from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69 and Master's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78. Dr. Kim

is a doctoral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from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Korea, in 1996,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1. He w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 is currently a Professor Emeritus in the Departmen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port psychology and Physical Education.



Byung-Jun Cho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Health Science and Physical promotion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5, 1997 and 2003, respectively. Dr. Ch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EMT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Korea in 2010.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M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Health care and emergence care.



Moon-Sook Lee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7, 1999 and 2005,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Instructor of the

Department of Sport Science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in 1999. She is interested in Leisure & Recreation and Therapeutic Recreation.